

Art100 플랜

내 삶의 힘, 100세 시대 은퇴파트너

2025 AUTUMN
VOL.51

AGENDA

가을, 광활하게 펼쳐진
황금빛 들판 속
누리는 수확의 기쁨

RETIREMENT

쾌적한 라운드 북해도 베스트 골프장
가을철 피부 관리법

FINANCIAL

금리 인하가 밀고 정책이 끄는 배당주 투자 A to Z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인가 안전판인가

HAPPY

고대와 현대 그 모든 것을 품은 이집트 카이로(가)자
인터뷰 _ 게그우먼 이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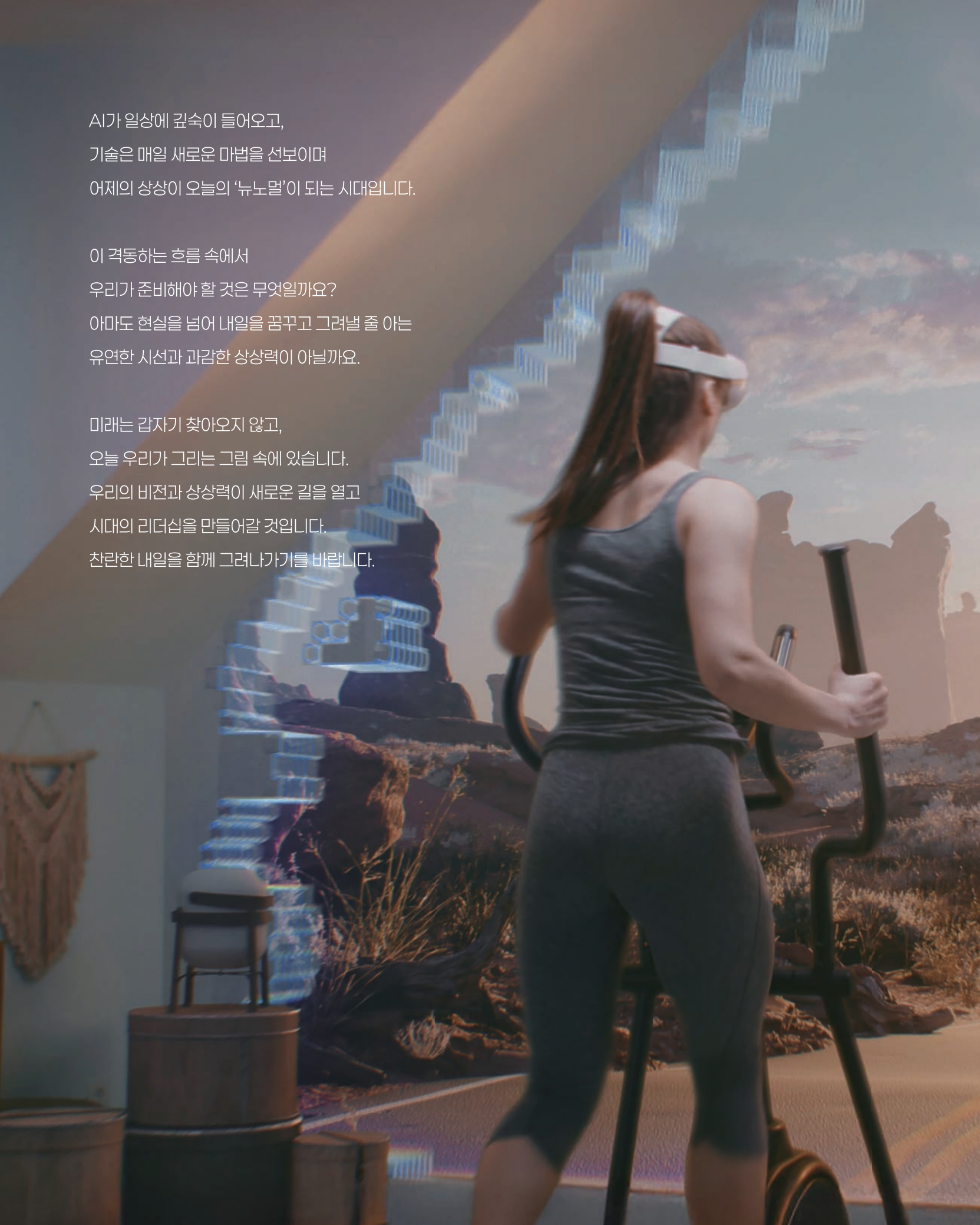
Why Not?

VISIONARY THINKING
현재를 넘어 생각하는 것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상하는 것

시가 일상에 깊숙이 들어오고,
기술은 매일 새로운 마법을 선보이며
어제의 상상이 오늘의 '뉴노멀'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 격동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현실을 넘어 내일을 꿈꾸고 그려낼 줄 아는
유연한 시선과 과감한 상상력이 아닐까요.

미래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고,
오늘 우리가 그리는 그림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상상력이 새로운 길을 열고
시대의 리더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찬란한 내일을 함께 그려나가기 바랍니다.





CONTENTS

2025 AUTUMN VOL.51

All100 플랜

2025년 가을 통권 51호

발행일 2025년 9월 1일

발행처 NH농협은행

발행인 은행장 강태영

편집책임 박현주

편집위원 김동민, 김혜정, 김훈식

제작 농민신문사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59

신고일 2012년 10월 19일

등록번호 서울중 바 00139

AGENDA

New
Happiness
은퇴설계
행복하게

06

All 100 NEWS

08

가을, 광활하게 펼쳐진 황금빛 들판 속
누리는 수확의 기쁨

10

세금

주택을 임대할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

12

금융

만능계좌 ISA, 연금자산의 또 다른 길을 열다

14

부동산

글로벌 자본이 한국 임대주택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

16

은퇴전략

가족과 함께하는 은퇴여행



18

시니어 취업

내 일을 지키는 첫걸음

20

골프

쾌적한 라운드

북해도 베스트 골프장

22

건강

가을철 피부 관리법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수분을 보충하자

24

기자가 읽어주는 경제 1

금리 인하가 밀고 정책이 끄는

배당주 투자 A to Z

28

기자가 읽어주는 경제 2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인가 안전판인가

32

법률 정보

현금청산자도 조합원일까?

정비사업에서의 지위 판단 기준



24



28



34



38

34

여가&조이

고대와 현대 그 모든 것을 품은

이집트 카이로(기자)

38

인터뷰

“제 개그로 한 분이라도 행복해지시길”

- 개그우먼 이수지

42

요리

주황빛의 달콤함 단감

44

영화

지구가 흔들려도 우리는 사랑할 거야

- 감시 사회를 살아가는 아이들을 그린 영화

<해피엔드>



QR코드를 스캔하면 NH농협은행 사보

All100 플랜을 e-book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내 4조 5천억 원 규모 금융지원 실시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이 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었으며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10억 원, 전국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52억 원 총 62억 원을 특별출연한다. 이는

약 900억 원 규모의 보증대출이다. 더불어, 올 한 해 신용보증재단과 1조 9천억 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도 2조 6천억 원의 규모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의 이러한 금융지원이 열악한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NH대한민국 히어로 패키지』 출시 및 감사행사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소방·경찰·해양경찰 공무원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마련됐다. 「NH대한민국 히어로 패키지」는 ‘히어로’들에게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NH 사랑THE 부동산 증여신탁』 출시

NH농협은행이 부동산을 활용한 자산승계신탁상품 「NH 사랑THE 부동산 증여신탁」을 출시했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이번 상품이 고객의 고민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스터리쇼핑 전금융권 1위 달성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NH농협은행 WM사업부가 본부 신관 대회의실에서 「미스터리쇼핑 전금융권 1위 달성을 위한 제2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었으며 2부는 노조관계자, 소비자보호부 실무진 등 여러 관계자가 참여한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토론회는 지난 2월 열린 토론회의 연장선으로, 보다

전략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완전 판매 내재화로 금감원 미스터리쇼핑 전금융권 1위 달성을 위함이다. 이에 이영우 투자상품·자산관리부문 부문장은 이번 토론회가 “감독기관의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고 나아가 영업점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시간”임을 강조했다.

WM사업부와 대한적십자 서울지사 『함께나눔 자산관리 서비스』 행사 실시

NH농협은행이 지역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쌀 400kg와 휴대용 선풍기를 기부하고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종합자산관리세미나를 제공했다.

이는 금융권 최초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쌀을 후원함으로써 ‘동주공제(同舟共濟)’의 경영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미나에서는 All100자문센터의 전문위원들이 부동산, 세무, 금융 등의 분야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이에 박현주 WM사업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가을,
광활하게 펼쳐진 황금빛 들판 속
누리는 수확의 기쁨

PERFOR

농부의 땀으로 알알이 맺힌 황금빛 곡물, 배를 채우려는 새들과 그걸 막는 허수아비,
보름달, 추석, 나무 가득 열린 밤들...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다.
가을이라는 계절은 우리가 땀 흘려 이룬 것들의 결과를 거두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봄, 여름 동안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면,
가을에는 여유를 가지고 풍요로움을 누려보는 건 어떨까?

올백플랜 가을호와 함께, 수확의 기쁨을 느껴보자!

PERFORMANCE

세금

주택을 임대할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

Amoo 저문센터

SUMMARY

글

이창언 세무전문위원



- ▶ 1.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기준 : 주택수에 따른 월세와 보증금 과세
- 2.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방법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3.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 주택임대차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홍길동(가명)은 직장인으로, 서울 소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택 중 1채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1채는 전월세로 임대하고 있다. 홍 씨는 신문기사와 뉴스를 통해 올해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에 대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고 앞으로 관할청에 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계획이다. 한편 홍 씨는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될까 걱정된다. 홍 씨의 경우 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살펴보자.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기준

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소득세법상 신고대상이다. 다만 다른 부동산임대와 달리 주택의 임대는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과세소득으로 본다. 세법에서 과세하는 주택임대소득의 기준은 아래 표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1 주택임대소득 과세 요건

주택수(부부합산)	임대차계약에 대한 내용	
	월세	보증금(간주임대료 계산)
1주택	비과세*	과세 제외
2주택	과세	과세 제외
3주택 이상	과세	과세**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 원 초과)의 월세는 과세대상 **전세보증금 합계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나,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 월세는 제외)은 비과세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2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3주택자부터 주택임대를 통해 얻게 되는 월세,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모두 과세한다. 여기서 말하는 간주임대료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전세보증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본이득을 말하며, 기준임대료 계산에 필요한 이자율은 매년 정부에서 공시하고 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법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소득을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이는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주택으로부터 얻는 임대 수입금액이 커질수록 더 많은 순이익을 가져가게 된다. 결국 세금은 소득금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징수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커질수록 내 손에 들어오는 순소득(세후소득)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서 얻는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이 발생한다면 전세금과 월세에 대해 적절한 비율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내용을 예시 표3을 통해서 살펴보면, 부부합산 2주택자 인 홍 씨가 아래와 같이 주택을 임대한 경우 세금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표2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법

주택임대 수입금액(연간)	과세 방법	비고
2천만 원 이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2천만 원 초과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	

표3 주택임대 수입금액과 세금

● 주택임대차 계약 내용

공통	Case1	Case2
주택임대소득 외 소득에 의한 과세표준 1억 원으로 가정	전세보증금 : 5억 원 월세 : 160만 원 (연 1,920만 원)	전세보증금 : 4.5억 원 월세 : 175만 원 (연 2,100만 원)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단위: 원

구분	Case1	Case2
수입금액	19,200,000	21,000,000
필요경비 + 공제금액	11,600,000	8,946,000
다른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타소득과 합산×)	100,000,000
최종과세표준	7,600,000	112,054,000
세율	14%	24%
산출세액	1,064,000	23,778,900
다른 소득에 의한 세금	-	19,560,000
주택임대로 발생한 세금	1,064,000	4,218,900

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홍 씨의 경우 부부합산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할 수 없지만, 월세에 대한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과세대상이다. 그러므로 연간 월세 임대수입금액 합계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가 나뉘진다. Case1처럼 홍 씨의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홍 씨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홍 씨는 이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이 1억 원으로 이미 35%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으므로 분리과세(세율 14%)를 선택해야 절세할 수 있다. 하지만 Case2처럼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홍 씨의 선택은 없어지고 다른 소득과 무조건 합산하여 세금을 정산한다. 그 결과 홍씨가 Case2처럼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월세수입은 증가하지만 오히려 세후소득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주택을 임대할 경우 단순히 월세를 높여 월 현금흐름을 높이는 것에만 관점을 두지 말고, 부부합산 주택수와 본인 소득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산출된 세후소득까지 고려하여 전세금과 월세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좋다.📌

금융

만능계좌 ISA, 연금자산의 또 다른 길을 열다

A1100 전문센터

SUMMARY

글
안비호 금융전문위원

- ▶ 1. 최근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금융상품 ISA
- 2. 가입자 수와 금액은 늘었으나 활용도는 제한적
- 3. '만기금액 연금전환' 기능을 적극 활용한다면 종합자산관리 가능



최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25년 2월 기준 가입자 수는 600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금액 40조 원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다. '만능 절세계좌'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매력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가입자가 ISA를 단기 운용한 후 해지해 수익을 실현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다소 아쉬움이 있다. ISA를 단순한 단기 절세 수단에 그치지 않고 100% 활용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기능이 있다. 바로 '만기금액 연금 전환'이다. 이는 ISA의 의무가입기간인 3년 이상을 유지한 뒤

해지할 경우, 계약기간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기능이다. ISA 만기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어떤 이점이 있을까?

연금자산 증대 필수 아이템, ISA

ISA 만기자금인 목돈을 연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혜택이다. 연금계좌는 일반 계좌와 달리 수익에 대한 과세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되고, 수령 시에도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세(15.4%)가 부과되는 일반 계좌와 비교하면 장기적인 복리 효과는 물론, 절세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다만, 연금계좌의 경우 연간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ISA를 활용하면 이야기

가 달라진다. ISA의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이체 금액은 기존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연 1,800만 원)와는 별도로 인정된다. 즉, 연간 납입한도와 무관하게 ISA 만기 자금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ISA 만기금액 연금 전환을 통해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를 확장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전략은 특히 금융자산이 많은 투자자에게 더욱 효과적이다. 이자와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ISA와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절세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ISA는 연간 납입 한도(2,000만 원)뿐 아니라 총 납입 한도(1억 원)도 정해져 있어, 만기 해지 이후에는 자산 일부가 일반 과세 계좌로 돌아가 다시 금융소득세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때 ISA 만기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자산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즉, 고액 자산가일수록 ISA와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한다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ISA를 활용해 13월의 월급 늘리기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주어지는 추가 세제혜택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다. ISA에 납입하는 동안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60일 이내 이체 금액의 10%(300만 원 한도)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소득 구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대 49만 5천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부족함을 느꼈던 가입자에게 매우 유용한 절세수단이 될 수 있다.

만약 자금 유동성이 걱정된다면, IRP보다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IRP는 중도인출에 제약이 있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한해 별도의 세금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ISA 만기금액 5,000만 원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하면, 최대한도인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나머지 4,700만 원은 필요시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해 추가 절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자금의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대표 절세계좌 ISA를 '만기금액 연금전환' 기능까지 활용한다면, 단순한 단기 절세 상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진정한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로 거듭날 수 있다. 노후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지금, ISA와 연금계좌의 연계 전략은 '절세'와 '연금자산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해답이 될 것이다.🎯

글로벌 자본이 한국 임대주택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

Am100 저문센터

SUMMARY

글

윤수민 부동산전문위원



- ▶ 1. 코리빙 시장에 글로벌 자금 관심 집중
- 2. 국내 임대주택 시장의 구조적 전환이 원인
- 3. 임대주택은 투자 자본의 전략적 자산으로 변화

세계 주요 투자은행 중 하나인 모건스탠리가 최근 국내 임대주택 시장 진입을 결정한 가운데,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이 '대한민국 주거용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다. 과거에는 서울 강남권 오피스 빌딩이나 대형 리테일 자산이 외국계 자본의 주요 타깃이었다면, 이제는 주거 상품, 그중에서도 임대주택이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자금의 관심이 집중되는 코리빙 시장

실제로 영국계 사모펀드 ICG는 코리빙 전문 운영사인 홈즈스튜디오에 약 3,0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고, 싱가포르

자청(GIC)은 SK디앤디와 손잡고 서울 주요 권역의 코리빙 주거시설에 공동 투자하였다. 최근에는 글로벌 투자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이 국내의 프롭테크(부동산 + 기술) 기반 주거 플랫폼과의 전략적 제휴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이처럼 전통적인 오피스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수익 창출이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흐름은, 국내 임대주택 시장이 '장기 수익형 투자자산'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비단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도 이런 시장의 흐름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고시원으로 개발 가능한 도심 내 역세권의 저렴한 꼬마빌딩의 거래량이 증가하였고,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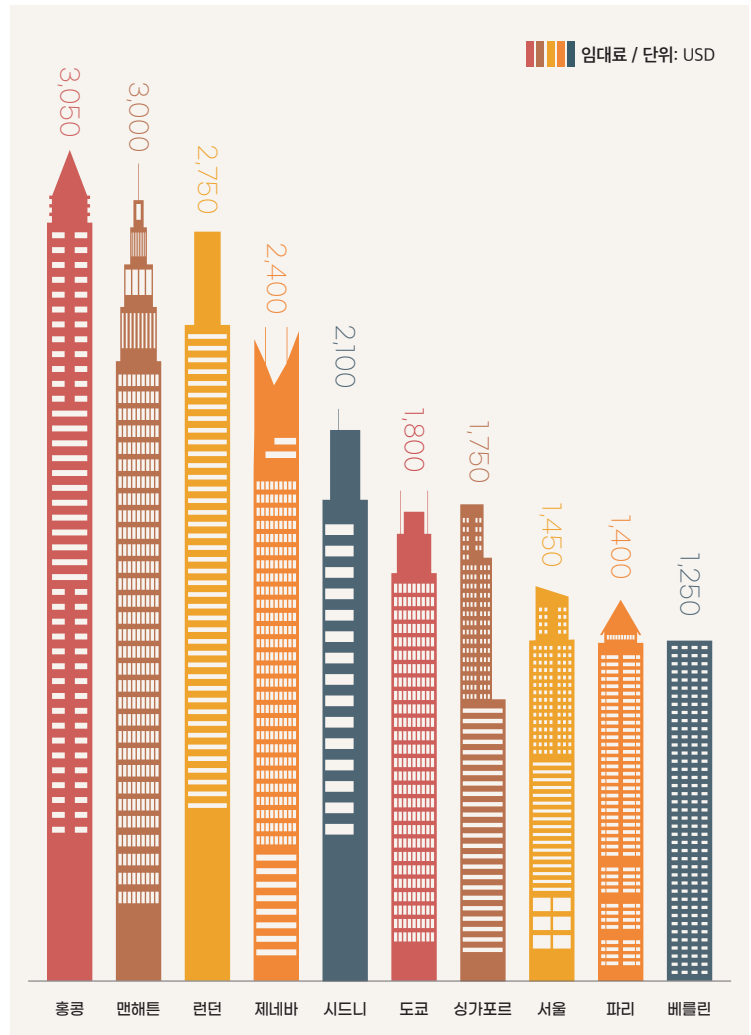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 원인

이러한 변화의 바탕에는 국내 임대주택 시장의 구조적 전환이 있다. 그동안 한국의 임대료 수준은 세계 주요 도시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도시 규모와 브랜드 가치에 비해 서울의 임대료는 여전히 저렴했으며, 전세 제도가 그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전세는 임대인에게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주고, 임차인에게는 저렴한 주거비를 제공해 임대료 상승을 억제해왔다. 하지만 2023년을 기점으로 전세의 붕괴와 월세화 가속이 본격화되었다.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전세사기 등의 불안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임차인 수요는 월세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월세화가 진행되며 국내 임대료 수준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매력에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원칙과 안정적 운용 수익률을 중시하는 글로벌 자본에게 도심 내 코리빙 주거는 자산관리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모두 부합하는 투자처로 평가받는다.

남은 과제와 대응방안

물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조가 민간 임대시장에서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는 민간 임대시장의 잠재적인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에도

표 세계 주요 도시 아파트 평균 임대료 비교(2025년 기준 / 1 Bed, 시내)



불구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공공 임대시장과 또 다른 민간 임대시장의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판단 아래 선제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국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시사점을 준다. 과거 고시원에서 진화한 코리빙 모델이 프롭테크 기반의 주거 플랫폼과 결합되며, 소액 분산 투자와 실물 자산 운용의 경계를 허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플랫폼 기반의 부동산 소유·운영 모델이 대중화되면서, 임대주택 시장은 점점 더 ‘기관과 개인이 함께 진입하는 구조’로 변화하는 것이다. 임대주택은 단순한 주거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본의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 시장 역시 이러한 변화를 단기 현상이 아닌 구조적 전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은퇴전략

가족과 함께하는 은퇴여행

Amoo 저문센터

SUMMARY

▶ 맛과 인생뷰가 공존하는 홋카이도

1. 도라에몽이 반겨주는 신치토세 공항
2. 오르골과 석양이 아름다운 운하의 도시 오타루
3. 강렬한 색채의 로드 후라노·비에이

글

김훈식 은퇴설계전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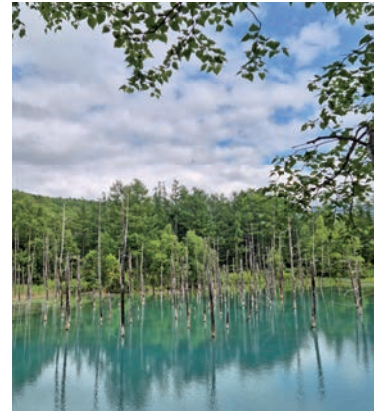
6월 서울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듯 더운 날씨와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가 올라간다. 이때 행복을 찾는 방법은 여행을 가는 것이고, 이에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을 여행지로 선택했다. 그 중 '삿포로'는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 세계3대 겨울축제가 열리는 곳인데, 그럼에도 추천하는 여행 기간은 6~9월이다. 이때는 최저 12도~최고 20도로 날씨가 온화하고 습하지 않아서 걷기에 너무나 좋기 때문이다.

도라에몽이 반겨주는 신치토세 공항

6월 13일, 새벽안개를 헤치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장기주차장에 주차한 후 7시 20분, 인천에서 삿포로로 출발해 신치토세 공항



에 10시경 도착했다. 입국심사를 통과하니 반겨주는 도라에몽은 행복한 여행의 시작을 알려준다. 공항 터미널 내에는 헬로키티, 포켓몬 등 캐릭터 스토어가 있어 다양한 볼거리가 있었지만 디저트와 음식 냄새에 홀려 미소라멘을 먹었다. 조금 짭짤했지만, 면의 쫄깃함과 육수의 진함은 매우 좋았던 기억이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지나 삿포로에 도착했고 버스에서 내리자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은 꼭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 같다. 호텔에 짐을 풀고 삿포로 최대의 변화가인 '스스키노'를 둘러본 후 줄 서서 먹는다는 '가라쿠수프커리'에 방문했는데, 인기에 걸맞게 이미 대기하는 줄로 가득했다. 그렇게 30분을 기다리고 후 인생 최고의 브로콜리를 맛볼 수 있었는데 튀긴 브로콜리에 살짝 그을린 불맛이 최고로, 꼭 추가하길 바란다.



오르골과 석양이 아름다운 운하의 도시 오타루

매번 패키지여행으로 갔었지만, 일본어를 잘하는 가족 덕에 오전 9시경 여유롭게 삿포로역에서 쾌속예어(기차)를 타고 '미나미오타루'역으로 출발했다. 오타루는 작은 도시로, 미나미오타루역에서 오타루역으로 걸어 가면서 구경하는 것을 추천한다. 미나미오타루역에서 8분 거리에 있는, 1912년 지어진 일본 최고의 오르골 전문점 '오르골당' 본점에서는 오르골에 들어가는 음악을 선택할 수 있어 선물로 인기가 좋다. 오르골당 앞에는 증기시계가 있어 30분마다 증기와 짧은 멜로디를 뿜어낸다. 우측에는 헬로키티 카페가 있고, 길 하나만 건너면 치즈 케이크로 유명한 '르타오' 본점이 있는데 메뉴를 고르기 어려우면 세트메뉴를 시키면 된다. 한국인 종업원이 있고, 케이크는 맛이 있으나 조금 작다. '스누피 차야로'에는 관광객의 취향을 저격하는 상품이 가득해 눈 깜빡하면 돈을 많이 써 버릴 수 있으니 주의하자. 또

한, '카마에이' 어묵공장에 가면 갯 만든 어묵을 맛볼 수 있는데 정말 맛있고, 10분쯤 가다보면 온통 파란 세상이 펼쳐지는데 영화 <러브레터>의 장소로 유명한 오타루 운하다. 저녁 무렵 하나둘 켜지는 가스등과 운하가 내뿜는 야경이 인생사진을 약속한다. 마지막으로 145년 된 기차길 '테미야선'도 포토존으로 유명하다.

강렬한 색채의 로드 후라노·비에이

일본은 대중교통이 비싸고 간격도 길어 한국에서 미리 버스타어를 예약하는 것을 추천한다. 삿포로역에서 투어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달리면 아름다운 휴게소를 만날 수 있고 삿포로 3대 디저트 맛집인 '키타카로' 슈크림은 옥수수향의 진한 크림빵이 일품이며 SNS 핫플로 유명한 크리스마스 나무에서 다양한 포즈의 사진은 기본이다. 이외에도, 비에이의 미술관 맛집 '준페이'의 가장 유명한 음식은 에비동(새우튀김덮밥)인데 바삭하고 찐조름한 통통 새우는 최고의 맛으로 4마리 주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외에도 15헥타르 부지에 다양한 꽃이 피는 사계의 언덕과 라벤더 꽃, 아이스크림이 유명한 '팜 토미타(FARM TOMITA)'는 보랏빛 향기에 취하게 하는 마법을 가지고 있다.

칠순의 어머니를 모시고 하루에 2만보를 걸으며 다닌 여행이지만, 짧은 비행시간과 적절한 온도, 여유 있는 일정, 시차적응이 필요 없는 점이 정말 좋았다. 삿포로의 낮에 방문한 카페는 여유를 즐기는 시니어 여성분들로 가득했고, 오르막이 없는 바둑판 도로는 걷기에 최적화되어 있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던 시의 구절이 은퇴 여행의 본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삿포로 여행이다. 🍁

내 일을 지키는 첫걸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시니어가 은퇴 후에도 일하고 있다. 특히 경비, 요양, 청소 등 생활 밀착형 직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노동자가 늘고 있는데, 권리나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시니어 노동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권리, 문제 대처 방법과 상담기관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글 이소영 서울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청소노동자

저는 올해 63세로, 아파트 청소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퇴사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만료나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으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두 달째 월급을 못 받았는데, 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을지, 노동부가 대신 돈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신고 시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퇴사 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채불은 3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시정을 명령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가 직접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불임금 대지급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경비노동자

경비원(감시적 근로종사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데, 근로기준법 적용 요건이 궁금합니다.

경비원은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합니다. 고용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채용한 경비원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적용이 제한됩니다. 연장·휴일 근로 가산수당 적용은 제외되지만, 야간 근로(밤10시~다음날 오전 6시) 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됩니다.

채용이 됐는데 근로계약을 쓰지 않아서 걱정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수급자 댁에 방문해서 일하다가 넘어져서 병원에 갔어요. 치료비는 제가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 다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대상이 됩니다. 수급자의 집으로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길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병원 진료와 함께 출근 기록, 일정표 등 사고가 근무 중에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무 중 폭언과 신체접촉으로 너무 힘든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기관 관리자에게 알리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나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든든콜'을 통해 심리 상담이나 성희롱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권리구제 기관



기관명	연락처
고용노동부	1350
국가인권위원회	02-2125-9700
정부 24	1588-2188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1588-0075
서울시 통합노동상담번호	1661-2020
서울노동권익센터	02-6925-4349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6959-5255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26

시니어노동자들은 다양한 일터에서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부당한 상황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글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는 존엄'을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



쾌적한 라운드 북해도 베스트 골프장

한여름 평균기온이 20도 내외인 북해도는 9월까지도 선선한 날씨가 지속된다. 여기에 광활한 자연 속에 자리 잡은 코스와 풍경은 골퍼들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가볼 만한 북해도 프리미엄 골프장을 소개한다.

출처 매경골프 글 조은혜 사진 북해도 관광청, 홋카이도 골프 관광협회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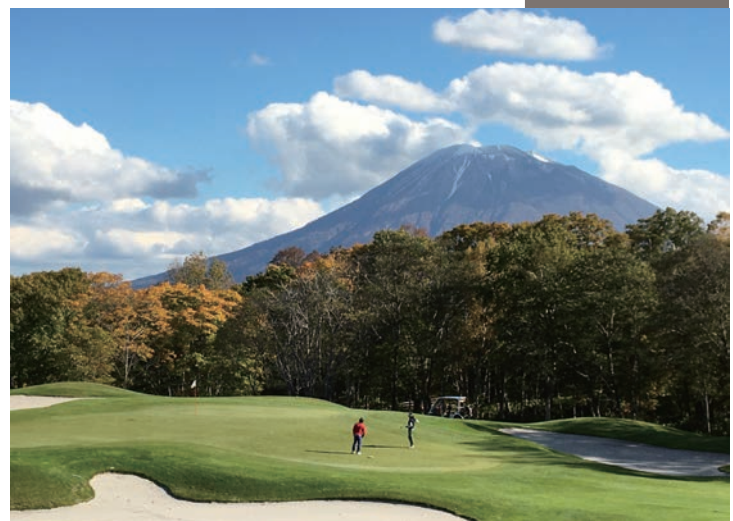
니세코 빌리지 골프 코스

니세코 지역의 대표적인 리조트 골프장인 니세코 빌리지 골프 코스는 넓은 숲지대를 배경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가 돋보인다. 코스는 전체적으로 평탄하며 완만한 언덕과 넓은 페어웨이가 이어져 초보자부터 중급자까지 누구나 여유롭게 라운드를 즐길 수 있다. 특히 10번 홀은 721야드에 이르는 파6홀로 일본 내 최장거리 홀 중 하나로 도전 의식을 자극한다. 요테이산을 조망하는 탁 트인 시야와 함께 계절마다 변하는 수목과 연못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과 같다. 니세코 빌리지 내 숙소인 힐튼 니세코 빌리지는 골프 코스와 도보로 연결되어 있어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뒤 곧장 티잉 그라운드로 향할 수 있다.

문의 www.niseko-golf.com **그린피** 7~9월 평일 8400엔 주말 1만3500엔(카트 포함 / 캐디 미포함)



Niseko Village Golf Course



Hanazono Golf

하나조노 골프

02



모든 홀에서 요테이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하나조노 골프 클럽은 자연경관과 치밀한 코스 설계가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챔피언십 코스다. 일본 유수의 설계가 미야자와 초헤이가 1992년에 설계했다. 아웃코스는 울창한 숲을 따라 조성된 임간(林間)코스, 인코스는 언덕을 따라 자연의 굴곡을 살린 지형으로 각기 다른 성격의 라운드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자작나무 숲 사이를 지나는 홀과 자연 크리크를 활용한 정교한 코스 레이아웃은 플레이어에게 섬세한 판단력을 요구한다. 후반 홀에서는 언듈레이션이 심한 페어웨이와 그린 이어져 도전욕을 자극한다. 2명에서도 라운드를 즐길 수 있으며 5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한정 운영된다.

문의 www.hanazonogolf.com/ja **그린피** 6~10월 평일 9600엔 주말 1만3600엔(카트 포함 / 캐디 미포함)

브룩스 컨트리클럽

03



북해도 골프장 중에서도 미국 정통 스타일의 골프를 경험하고 싶다면 브룩스 컨트리클럽을 주목하자. 코스 설계가 에드 스니드와 가와타 타이조는 아름다우면서도 전략적인 레이아웃을 구성해 코스를 설계했다. 약 50만 평(약 165만㎡)의 부지는 넓은 페어웨이와 탁 트인 시야가 매력적이다.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려 만들어진 코스 레이아웃은 미국 명문 골프장의 감성을 지닌 품격 있는 분위기가 돋보인다. 잔디의 밀도, 높이, 그린 스피드 모두 프로 대회 수준을 유지하려는 관리 철학이 명확해 코스 컨디션 관리도 철저히 한다. 클럽하우스는 삼각 지붕이 인상적인 고풍스러운 디자인으로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고저택을 연상시키는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레스토랑에서는 간단한 식사부터 전골 요리까지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문의 www.brooks-c.com **그린피** 6~9월 평일 2만9000엔 주말 3만9000엔(카트 포함 / 캐디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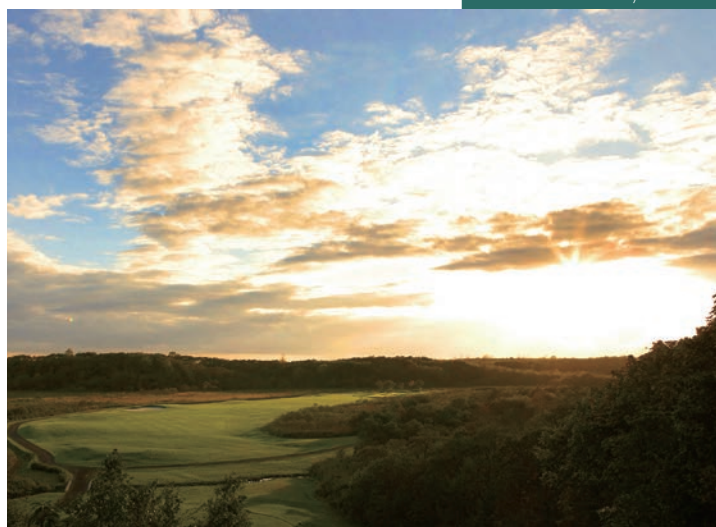
04

더 노스 컨트리 골프 클럽

더 노스 컨트리 골프 클럽은 전 홀 벤트그래스 코스로 수준 높은 코스 컨디션을 자랑한다. 다양한 투어 대회에 참가했던 프로 골퍼 아오키 이사오가 직접 코스 설계를 맡았으며, 오거스타의 화려함과 스코틀랜드의 전통이 조화롭게 융합된 것이 특징이다. 전체 고저차는 5m로 매우 평탄하며 자연 그대로의 지형을 살린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었다. 코스 전반에는 8개의 워터 해저드가 배치되어 있고 마지막 3개 홀은 물을 테마로 한 명물 홀로 구성 된다. 16번 홀은 연못으로 둘러싸인 아일랜드 그린인 인상적인 파3홀이며, 17번 홀은 드라이버 티 샷 후 세컨드샷을 쇼트 아이언으로 공략할지 아니면 안전하게 끊어갈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전략적 레이아웃이다. 18번 홀은 장타자라면 투온도 노릴 수 있는 파5 롱홀로, 그린 앞 워터 해저드가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게 만든다. 각 홀이 플레이어의 실력에 따라 공략 루트와 전략이 달라지는 '존 오브 어택' 개념이 반영되어 있어 명확한 코스 매니지먼트가 요구된다. 매년 8월에는 남자 프로 골프 대회인 '나카시마 시게오 인비테 이셔널 세가사미컵 골프 토너먼트'가 개최된다.

문의 www.the-north.co.jp **그린피** 5~10월 평일 3만1000엔 주말 3만9000엔(카트 포함 / 캐디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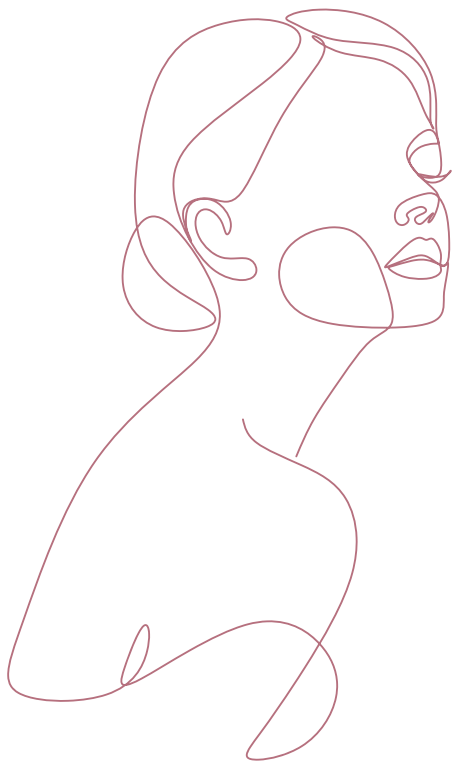
Brooks Country Club



The North Country Golf Club



가을철 피부관리법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수분보충하자



가을에 피부를 방치하면 건조하고 거칠어질 수 있다.
민감하거나 트러블이 자주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환절기에도 끄떡없는 피부를 만들기 위해 가을에 맞는
피부 관리법을 소개한다.

글 강선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뷰티학과 특임교수, 피부관리실 애띠에 원장

가을에 피부 관리가 왜 중요한가요?

가을에는 여름보다 기온이 떨어지고, 강수량이 적어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피부가 쉽게 건조해집니다. 낮은 습도와 차가운 바람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습니다. 피부는 건조해지면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지 분비량을 증가시켜 유수분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유수분 균형이 깨지면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고,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가 될 수 있으므로 가을에 피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을철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가을의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습입니다. 여름에 가벼운 제형의 제품을 사용했다면, 가을에는 뛰어난 수분 공급과 풍부한 영양감으로 피부를 보호해주는 제품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 후 피부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토너와 에센스를 사용해 수분을 공급하고, 그 위에 보습제를 발라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밤에는 수면 팩이나 보습력이 높은 크림을 사용해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촉촉하게 생기를 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수분을 보충하려면 커피·차·음료보다는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복에 한 잔 마시고, 1~2시간 간격으로 물을 마시되 한 컵을 여러 번 나눠 마셔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을 주로 마시며, 식전 30분, 식후 2시간이 지나고 물을 마시기를 추천합니다. 운동이나 육체 활동 후 땀을 배출했을 때, 기온이 없을 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울 때 평소보다 물을 두 컵 더 마셔야 합니다.

피부 유형에 따라 보습제 바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는 토너, 에센스 같은 수분이 많은 제품으로 피부에 수분을 넣어주고, 크림류 제품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건성피부는 토너와 에센스처럼 수분이 많은 제품을 바르고, 그 위에 강한 보호력의 로션과 크림을 덧발라 수분이 밖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게 보호해줍니다. 그래도 건조하다면 크림에 오일을 한두 방울 섞어 바릅니다.

지성피부는 촉촉한 제형의 수분이 많이 들어간 토너와 에센스를 바르고, 가벼운 제형의 로션이나 크림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모공을 막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트러블이 일어나면 무거운 제형의 제품부터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는 일반 지성 피부가 사용하는 보습제를 사용하고, 마무리 크림으로 세라마이드 등 세포 간 지질이 들어간 제품을 한 번 더 덧발라 피부장벽을 보호해줍니다.

가을에는 각질제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질제거에는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 각질제거는 알맹이가 피부 표면을 긁어내 각질을 제거하는 ‘스크럽’, 고마쥬 성분이 각질과 뭉쳐지며 벗겨내 각질을 제거하는 ‘고마쥬’, 팩이 마르면서 각질을 흡착해 각질을 제거하는 ‘필 오프 팩’ 등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은 과도하게 사용하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화학적 각질제거는 화학물질을 사용해 피부의 죽은 세포를 녹이는 방법입니다. 아하(AHA)는 각질제거와 보습 효과에 도움이 됩니다. 노화 피부를 비롯해 모든 피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하(BHA)는 기름기를 제거해주고 항염 효과도 있어 여드름 피부, 지성 피부에 효과적입니다. 파하(PHA)는 아하(AHA)와 비슷하지만, 분자량이 커서 자극도가 낮아 민감성 피부에 좋습니다. 모공 축소, 피지 억제 기능을 하는 라하(LHA)는 여드름 피부, 민감성 피부, 지성 피부에 잘 맞습니다.

각질제거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야 피부가 자극 받지 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잘못되거나 너무 자주 각질을 제거한다면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민감해집니다. 건조한 피부라면 주 1회, 유분이 많은 피부는 주 2회, 민감한 피부는 2주에 1회씩 각질 제거할 것을 추천합니다.

가을에 맞는 피부 관리 팁을 알려주세요!

가을에는 강한 자극을 주는 세안제를 피하고, 피부의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순한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 후에는 곧바로 토너를 사용해 피부 산성도(pH)의 균형을 맞추고,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을에는 풍부한 보습력을 담은 보습제를 사용하기를 추천합니다. 수분과 유분의 균형을 맞춰주는 크림 제형의 보습제가 특히 효과적입니다. 히알루론산·세라마이드·글리세린 등이 함유된 제품이 좋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피부에 깊은 보습을 제공하고, 수분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밤에는 보습 효과가 더욱 풍부한 나이트 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에도 자외선차단제 사용은 필수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며, 기미와 잡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라고 해서 자외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외출 전에는 반드시 자외선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을에는 비타민이 풍부한 식단이 피부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당근·시금치·블루베리·오렌지·연어 등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리 인하가 밀고 정책이 끄는 배당주 투자 A to Z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물가 상승세도 둔화되면서 배당주의 상대적 매력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들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해 2.5%까지 낮췄으며,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 등 저위험 자산의 실질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고배당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 향한 정부 시그널...

세제 혜택도 확대

배당주는 기업의 재무 안정성과 주주환원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됩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을 공언하며 배당 확대를 중시 부양책의 핵심 축으로 제시한 만큼 고배당주는 정책 수혜주로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배당주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개인 투자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배당 유인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서 분리 과세하고, 15.4~27.5%의 세율을 별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배당소득이 3억 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기존 최고 49.5%였던 세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금흐름, 배당성향, DPS 추이...

배당 지속성 3대 체크포인트

배당주를 고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회계상 ‘순이익’보다 실제 벌어들이는 ‘현금흐름’입니다. 순이익은 일회성 손익 등 비정기 항목이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꾸준한 배당 여력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비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기업 본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실제 현금으로, 지속적인 배당이 가능한지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좋은 배당주는 일반적으로 영업현금흐름이 꾸준히 발생하고, 순이익과 유사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최근 35년간 현금흐름표를 살

펴보고,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준인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는 배당성향입니다. 이는 순이익 중 얼마를 배당금으로 지급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30~60% 수준이 적정한 범위로 평가됩니다. 이보다 낮으면 기업이 주주환원에 소극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높으면 일시적 고배당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당성향이 장기간 평균 이상을 유지해온 기업은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당배당금(DPS)의 추이를 살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DPS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거나 최소한 줄지 않고 유지됐다면, 해당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배당을 지급할 가능성이 큼니다.

기아·DB손보·LX인터...

업종별 대표 韓고배당 종목

유진투자증권이 제시한 국내 고배당 유망 종목 중 현대엘리베이터는 유지보수 중심의 사업 구조로 수익성이 높아 배당 여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기아와 현대차가, 보험업에서는 DB손해보험이, 상사 부문에서는 LX인터내셔널이 대표 종목으로 꼽힙니다. 이 밖에 지역난방공사, GS, NH투자증권, 하나금융지주 등이 다양한 업종에서 고배당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8% 배당, 미국 고배당주도 주목

미국 주식은 글로벌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는 대표적인 배당 투자 자산입니다. 미국 투자정보업체 모닝스타가 발표한 2025년 고배당

*** 주당배당금**

주식 한 주당 지급되는 배당금

*** 소비재**

일반 소비자가 일상에서 구매해 직접 사용하는 물건

주 리스트에는 리얼티인컴(5.58%), 버라이즌(6.10%), 키코프(4.51%), 헬스피크(7.15%), 라이온델바젤(10.35%), UPS(7.58%)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종목은 대부분 통신, 인프라, 리츠, 소비재 등 경기 방어적인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적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인 배당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미국 달러 자산으로 보유할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손익도 고려해야 합니다.

표1 배당수익률 약 5% 이상 주요 국내 종목

단위 : %

이름	업종	올해 예상 배당수익률 (=배당/주가)
지역난방공사	유틸리티	7.10
LX인터내셔널	상사, 자본재	6.76
현대엘리베이터	기계	6.15
기아	자동차	6.05
GS	에너지	5.85
DB손해보험	보험	5.80
NH투자증권	증권	5.70
강원랜드	레저	5.58
현대차	자동차	5.56
하나금융지주	은행	4.49

출처 : 에프앤가이드, 유진투자증권, 한국거래소(예상 배당수익률은 8월 19일 기준)

표2 배당수익률 약 5% 이상 주요 미국 종목(2025년 기준 Morningstar 선정)

단위 : %

이름	업종	올해 예상 배당수익률 (=배당/주가)
UPS(UPS)	운송/물류	7.58
크래프트하인즈(KHC)	식품	5.87
헬스피크(DOC)	리츠(의료·생명과학 부동산)	7.15
에버소스(ES)	유틸리티	4.66
키코프(KEY)	지역 은행	4.51
에너지트랜스퍼(ET)	에너지 인프라	7.61
라이온델바젤(LYB)	화학	10.35
버라이즌(VZ)	통신	6.10
리얼티인컴(O)	리츠(상업용 부동산)	5.58
포틀랜드제너럴(POR)	유틸리티	5.01

출처 : 모닝스타, 예상 배당수익률은 8월 19일 기준

ETF로 배당주 분산투자

개별 종목을 직접 고르기 어렵거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분산 투자를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고배당 ETF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고배당 ETF로는 '슈왑 US 배당주 ETF(SCHD)'가 있습니다. 미국 최대 증권사인 찰스슈왑이 운용하는 ETF로, 미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우량 기업에 분산 투자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어 장기 투자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연 배당수익률은 약 3.9%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한 고배당 ETF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커버드콜 ETF는 주가 상승분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보유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팔아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이 옵션 수익이 배당처럼 분배되기 때문에, 일반 배당주보다 더 높은 현금흐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JP모건 에퀴티 프리미엄 인컴 ETF(JEPI)'와 'JP모건 나스닥 에퀴티 프리미엄 인컴 ETF(JEPQ)'가 있습니다. JEPI는 연 배당수익률이 약 8.4%, JEPQ는 약 11.2%에 이르며, 두 상품 모두 월 단위로 배당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고정 수입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선호합니다.

이처럼 미국 시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고배당 ETF가 상장돼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도 KODEX 고배당 ETF, TIGER 배당성장 ETF 등 여러 고배당 상품을 통해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주식 종목 선정이 어렵거나 시장 변동성이 걱정된다면 이러한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고배당 전략에 참여하는 것도 유효한 선택입니다.



ISA·연금계좌 활용해 절세...

해외배당 과세 변화는 주의

배당소득에는 기본적으로 15.4%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되며, 이자소득 등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49.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계좌,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절세계좌를 활용한 세금 관리는 배당주 투자 전략의 핵심 요소로 꼽힙니다.

이들 절세계좌는 그간 국내외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기본적으로 15%의 세금이 현지에서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에서 이 외국납부세액을 국세청이 먼저 환급해줬기 때문에, 투자자는 세전 배당금 100%를 재

* 과세이연

세금 납부를 미래로 미루는 제도. 이연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더 키울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외납세액 전환금 제도

연금저축이나 IRP로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된 세금을 먼저 환급해주고, 연금 수령 시점에 다시 과세하는 제도

투자할 수 있었고, 이후 연금 수령 시점에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해외 배당에 한해 이러한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외납세액 전환금 제도를 폐지하면서, 미국 주식이나 해외 ETF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된 세후 금액만 수령하게 됐습니다. 즉, 투자자가 배당을 받을 때 이미 해외에서 15%의 세금이 공제돼 들어오며, 더 이상 과세이연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기존에는 100만 원의 배당금을 전액 재투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5만 원의 세금이 미리 빠져나간 85만 원만 재투자 가능한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복리 효과가 줄어든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배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세이연 혜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인가 안전판인가

2025년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인 상태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고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매해 집값은 국민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이 최근 집값 상승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집값 급등기에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해왔습니다. 문제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취지와 달리 '아파트 거래 허가제'로 변질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가 무엇이고, 어떤 이유에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가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계약이 유효합니다. 이 제도는 지난 1978년 '국토이용관리법'에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히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수한 후 실질적인 이용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허가를 받고 나면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토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으로 구입했다면 실제로 주택을 짓거나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되거나 토지 취득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 허가 없이 거래한 경우에도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투기 수요를 걸러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신도시 예정지나 정비사업 구역, 대규모 개발계획이 예정된 지역에서 자주 지정되곤 합니다. 지정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5년까지며, 사안에 따라 연장되기도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양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효과적인 도구로 작용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투기 수요 차단과 거래 투명성 제고, 실수요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지정 지역에서는 실제 거주나 사업 목적이 아닌 경우 토지를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구역 지정은 대규모 개발계획이 예정된 지역에서 토지 거래 과열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3기 신도시나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같은 지역에서 허가구역이 설정되면, 그만큼 토지 매입이 신중해지고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제도가 모든 경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수요자에게도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정당한 용도로 구매하려는 이들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허가 기간이 길어질 경우 매수 타이밍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또 부동산 시장에 불확실성을 유발해 거래 위축과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풍선효과'도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비규제 지역 내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허가구역 내 거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토허제 구역 인근의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건데요, 특정 지역에서 수요를 막으면, 다른 지역의 수요가 늘어나는 이른바 '국지적 과열'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현상에 따라 토허제는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사고파는 것이 어려워지고, 거래 자체가 줄어들면서 시장에 유통되는 매물이 감소하게 됩니다. 매도자들도 규제에 따른 절차의 복잡성과 거

래 불확실성 때문에 매물을 내놓기를 꺼려하는데 이는 곧 공급 축소로 이어집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시장에서는 희소성이 형성되고,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경우 가격 상승 요인이 됩니다. 또한 정부가 해당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은, 개발 가능성이나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선제적 규제’ 또는 ‘개발 전 단계’로 해석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규제가 해제되면 억눌렸던 수요가 한꺼번에 분출되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합니다.

결과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단기적으로 거래를 제한하지만, 희소성·기대심리·정책 신호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오히려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서울 강남을 둘러싼 해제와 재지정...

왜 논란이 됐나?

올해 2월, 서울시는 강남 지역의 일부인 잠실과 삼성, 대치, 청담 등을 포함한 고가주택이 몰려

* 종선효과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몰려 집값이 오르는 현상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 건설 종합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 이용 계획의 입안 및 결정, 토지 거래의 규제와 토지 이용의 조정 따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숨통을 틔우고, 자율적 거래 회복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자극되면서 거래가 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 상승 조짐까지 나타난 겁니다.

결국 서울시는 해제 한 달여 만인 지난 3월, 다시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전체와 용산까지 확대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장 분석이 부정확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규제를 완화하고, 다시 강화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수요 심리와 유동성 흐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정책의 일관성도 부족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와의 정책 공조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





을 가장 경계하는 영역인 만큼, 정책 결정의 일관성과 사전 분석의 정밀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이 다시금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규제는 신뢰에서 출발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균형 문제를 넘어서, 정책 신뢰와 정치적 의도에 대한 해석이 시장 움직임을 좌우하는 민감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숫자보다는 메시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환경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나 재지정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통제하려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받아들여집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한 달여 만에 다시 재지정한 결정은 시장과 행정의 간극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해제 당시에는 '거래 회복과 시장 정상화'라는 논리가 앞세워졌지만, 실상은 기대 심리 자극과 투자 수요 유입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어진 재지정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시장 동향을

* 용산 국제업무지구 (용산 서울코어)

용산역 일대를 비즈니스 중심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

*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 투자를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가 혼란에 빠졌고, 정책 신뢰도 역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개발 예정지와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를 위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잦은 변화를 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규제 완화라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그 반대의 조치는 투자 억제와 시장 통제의 신호로 인식됩니다. 이 메시지가 자주 바뀔 경우, 시장은 불확실성에 반응하며 오히려 과열되거나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효과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방향은 규제 그 자체보다도 시장의 구조적 수요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토허제와 같이 특정 지역을 정조준한 규제는 단기적으로 과열을 막을 수 있으나, 결국 수요는 대체 가능한 인근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른바 '풍선효과'인데,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 따르면 강남 3구의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인접한 강동구나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용산·성동구에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허가구역을 추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규제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서울 핵심 지역의 초과수요가 해소되지 않는 한 규제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개별 규제 조치가 아니라, 충분한 주택 공급과 정교한 수급 관리, 그리고 일관된 정책 신호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현금청산자도 조합원일까? 정비사업에서의 지위 판단 기준

관리처분계획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지위’가 유지될까요?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지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권리들을 정리했습니다.

조합원이란 누구를 말할까?

정비사업에서 말하는 조합원은 일반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토지 등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크게 1.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2.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경우(분양을 받을 의사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 또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법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자로 전환될 수 있는데, 현금청산자 전환 시점과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아닌가?

조합원 지위 판단에 있어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분양계약 미체결은 현금청산자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준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분양신청이 없으며’, ‘조합이 현금청산 절차를 진행해 현금청산자로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예정일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고, 현금청산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조합원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 지위 유무의 권리 차이

자격 유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면 1. 분양권(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2. 총회 의결권(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 3. 정보 열람권(조합의 사업 진행 현황을 확인할 권리)과 같은 실질적 권리를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면 청산금 수령으로 그 권리가 제한되어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상의 변화가 아니라 수억 원에 달하는 재산상 권리 차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 체결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현금청산자로 전환되어 그 지위가 법적으로 확정되면, 이후 뒤늦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조합원 명부를 정비해야 하며 조합원과 청산대상을 구분하지 못하면 행정처분이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글 김철웅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변호사



Happy

행복이야기

여가&조이

고대와 현대 그 모든 것을 품은
이집트 카이로(기자)

인터뷰

“제 개그로 한 분이라도
행복해지시길”
- 개그우먼 이수지

요리

주황빛의 달콤함
단감

영화

지구가 흔들려도 우리는 사랑할 거야
- 감시 사회를 살아가는 아이들을
그린 영화 <해피엔드>

고대와 현대 그 모든 것을 품은 이집트 카이로(기자)



01 기자의 대피라미드 ▶ 도보 10분 ▶ 02 기자의 대스핑크스
▶ 도보 10분 ▶ 03 그레이트 피라미드부 인 호텔 루프탑 카페
▶ 차량 35분 ▶ 04 il Nilo 레스토랑 ▶ 차량 15분 ▶
05 이집트 문명 박물관 ▶ 차량 20분 ▶ 06 칸 엘 칼릴리 시장



글 · 사진 김수연(@suvely07) 여행작가

인천에서 경유 1회 포함 약 18시간을 날아야만 만날 수 있는 곳. 이집트 '카이로'는 찾아가기 어려운 만큼이나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놀라움 그 자체의 도시이다. 도심 바로 옆에 위치한 피라미드와 �핑크스가 고대 문명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다면, 반대편에는 도심 속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지인들의 모습이 겹쳐지며 묘한 매력을 풍긴다. 이런 카이로를 사람들은 이집트 최대 도시이자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 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01 신과 인간 그 어느 사이 기자의 대피라미드



...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유적으로 단순한 무덤이 아닌, 신과 인간 사이를 잇는 거대한 상징물이었다. 카이로 도심에서 약 13km 떨어진 기자(Giza) 지역에는 크고 작은 9개의 피라미드가 있다. 그 중, 가장 각광받는 피라미드는 총 3개로 가장 큰 쿠푸(Khufu)왕 대피라미드, 그 옆으로 자리한 카프레(Khafre)왕 피라미드, 그리고 가장 작은 멘카우레(Menkaure)왕 피라미드다. 이 중 가장 크기가 큰 쿠푸(Khufu)왕의 대피라미드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과연 인간의 힘으로 축조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기원전 2700년과 기원전 2500년 사이의 어느 즈음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쿠푸(Khufu)왕의 피라미드는 돌 하나 무게가 평균 2.5톤이며 총 230만 개 이상의 암석으로 이루어져있고 그중 석회암 550만 톤, 화강암 8천 톤, 회반죽 50만 톤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실제 피라미드 앞에 서면 이 거대한 건축물을 수천 년 전 인간의 손으로 쌓아 올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피라미드를 끼고 마차나 낙타 트래킹도 즐길 수 있는데, 넓은 기자 피라미드 부지를 편히 둘러보기에 좋은, 꽤 이색적인 활동이다.

INFORMATION

주소 Al Haram, Nazlet El-Semman, Al Haram, Giza Governorate 3512201 **운영 시간** 매일 07:00~16:00(입장마감) / 매일 08:00~16:30(라마단 기간) **입장료** 700 EGP(성인)

TRAVEL TIP

• 그늘이 전혀 없어 이른 아침 방문이 좋음 • 낙타 트래킹 후, 과한 팁 요구 받을 수 있음 • 호객행위가 심할 때는 '라 슈크란'(=no, thank you)로 대응

02 카프레의 수호신 기자의 대스핑크스

기자 피라미드 단지를 둘러보다 보면, 거대한 피라미드 못지않게 시선을 사로잡는 존재가 있다. 바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핑크스다. 피라미드 바로 옆에 함께 위치하고 있는 대스핑크스는, 이집트 내 있는 모든 �핑크스 석상을 통틀어 가장 크기가 크고 아름다워 '대스핑크스'로 불린다. �핑크스는 사자의 몸, 인간의 얼굴을 가진 형상인데 앞발부터 꼬리까지 총 73m, 기단부터 머리까지 약 높이 20m, 너비 19m의 규모이다. 오랜 소문 중 하나로 �핑크스의 얼굴은 카프레(Khafre)왕 본인의 모습을 본떠 조각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듯 카프레왕 피라미드를 수호하는 위치에 있다. 놀랍게도 �핑크스는 작은 돌조각을 모아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의 거대한 석회암 바위를 깎아 만든 일체형 조각인데, 당시의 뛰어난 조각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유산이기도 하다. 실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핑크스를 바라볼 수 있는데, 조각의 기술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을 수준이다.



...

TRAVEL TIP

• 피라미드 입장권 구매 후, 티켓 보여주고 재입장 (무료) • �핑크스의 정면, 측면 모두 보고 올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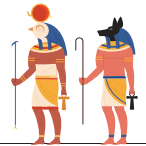
03 피라미드를 한 눈에



그레이트 피라미드 인 호텔 루프탑 카페

피라미드와 �핑크스를 둘러본 후, 바로 앞거리에 위치한 호텔의 루프탑 카페에서 쉬어가는 건 어떨까? 카이로에서 가장 여유롭게 피라미드를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카페에서의 시간은 잠시 고대와 현대 그 어느 사이의 묘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여행의 재미 요소가 된다.

시원한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고개를 들면 피라미드가 눈앞에 펼쳐지는데, 가까이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더욱 선명하고 또렷하게 피라미드를 마주할 수 있다. 역사책에서만 보던 유적이 일상에 들어오는 낯설고도 특별한 경험을 추천하고 싶다.



INFORMATION

주소 14 Abou Al Hool Al Seiahi, Al Haram, Giza Governorate 12111

운영 시간 매일 09:00 ~ 20:00 비용 아메리카노 60EGP, 망고주스 100EGP

TRAVEL TIP

• 이집트 여행 중 당도 높은 망고주스는 필수 • 피라미드가 붉게 물드는 '선셋 타임'을 추천

04 나일강 뷰를 품은

고대 유적에서 잠시 나와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카이로 도심으로 발길을 옮겨본다. 카이로는 나일강을 끼고 있는 도시로 그 도심의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는 레스토랑이 바로 'il Nilo' 레스토랑이다. 한국으로 빗대면 '한강 뷰' 레스토랑이라고 칭할 수 있겠다.

로컬 음식점은 아니지만, 이미 현지인 그리고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곳으로 구글 지도 기준 주변 레스토랑과 비교하면 평점도 높고 리뷰도 많은 곳이다. 레스토랑에서 직접 구워주는 화덕 피자는 한국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피자 그 이상의 맛을 선사하니 나일강 뷰를 보며 꼭 맛보는 것을 추천한다.



...

INFORMATION

주소 1085 Nile Corniche, El-Nile. Cairo Governorate 4272010

운영 시간 매일 09:00 ~ 02:00 비용 마르게리타 피자 1판 285EGP

il Nilo 레스토랑



05 실제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곳 이집트 문명 박물관

다음은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미라'를 보러 떠나본다. 이집트 문명 박물관은 이집트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약 7,000년에 걸친 문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과거부터 현대까지 이집트 문명의 흐름을 시기별로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총 50,000개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가장 이목을 끄는 전시 관은 '왕가의 미라 전시관'으로, '파라오의 황금 행진'으로 유명한 22구의 왕가 미라가 안치되어 있다. 전시관 내부는 매우 어둡고 조용하게 운영 중이며, 미라 사진 및 영상 촬영은 불가능하다. 작가가 직접 눈에 담았던 미라는 당시 그 왕가의 얼굴 형태도 엿볼 수 있을 정도로 손가락, 발가락, 머리카락, 치아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경이로웠다.



...

INFORMATION

주소 Ein as Seirah, Old Cairo, 알 카히라 4245001

운영 시간 매일 09:00 ~ 17:00 입장료 성인기준 550EGP



06 14세기부터 운영된 살아 있는 역사 칸 엘 칼릴리

칸 엘 칼릴리(Khan el-Khalili)는 이집트에서 유명한 전통 시장들 중 하나로, 14세기부터 현대까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관광 명소다. 이집트에서는 시장을 '바자르'라고 하는데, 이 바자르에는 향신료, 향수, 전통 수공예품, 금은세공품, 유리공예품, 카펫, 의류 등 현지에서 만든 각종 기념품들이 빼곡히 판매되고 있다. 현대 시장과 달리 오래전부터 유지된 좁은 거리와 작은 상점은 중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도 하다. 자칫 잘못하면 현지 물가 대비 10배는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상점 주인들은 완벽하게 현대화가 되어 있다.



INFORMATION

주소 El-Gamaleya, El Gamaliya, 알 카히라 4331302

운영 시간 매일 09:30 ~ 00:00

TRAVEL TIP

- 'Jordi Bazar Shop'이라는 피켓이 붙은 가게는 모든 제품을 정찰제로 판매하고 있어, 호객과 흥정 과정을 피할 수 있음
- 이집트 여행 중, 기념품이나 선물은 여기에서 사는 것이 가장 적합



‘천의 얼굴’ 이수지

“제 개그로 한 분이라도 행복해지시길”

요즘 전 국민의 웃음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
바로 개그우먼 이수지다. 누구보다 바쁜
상반기를 보낸 이수지는 설레는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기획 및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하이스피드’에서 다양한 캐릭터로 변신해 ‘천의
얼굴’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글 이은주 서울신문 기자
사진 CP엔터테인먼트

개 그 우 먼

LEE SU JI

이수지는 KBS 인기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에서 보이스
피싱을 패러디한 코너 ‘황해’에서 조선족 말투를 구사하는 캐릭터
‘런자오밍’으로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가수 싸이, 배우 김고은 등 연
예인부터 재미교포, 인플루언서, 역술인, 성형외과 상담실장까지 타
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대모사의 달인’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그는 자식 교육에 열을 올리는 강남의 일부 학부모들을 패러디
한 ‘제이미 맘’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지난 4월 ‘제61회 백상
예술대상’에서 여자 예능인상을 거머쥐었다. 그뿐만 아니라 쿠광플
레이 ‘SNL 코리아’와 ‘직장인들 시즌 2’ 등 각종 예능 프로그램은 물
론 드라마 ‘눈물의 여왕’, ‘신병’ 등에서 연기자로도 활약했다.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수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백상예술대상 거머쥔 ‘성대모사의 달인’

올해 누구보다 행복한 해를 보내고 계신데.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웃으셨으면 좋
겠다는 생각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제게는 ‘웃기다’는 말이 최고의 칭찬인데 재밌다고 해주서
서 힘이 납니다. 웃음을 위해 내려놓는 것은 누구보다 자신이 있거
든요. (웃음)

명품으로 치장하고 영어를 섞어 쓰는 말투 등 ‘제이미 맘’의 현실
고증이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명품은 대부분 친구나 지인들에게 빌렸고 주변 어머니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들은 내용을 극대화해서 캐릭터를 표현했어요. 유튜브
구독자들의 제보와 댓글이 큰 도움이 됐죠.

패러디 연기를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주로 일상 속의 공감대에서 개그의 소재를 얻어요. 누군가를 겨냥해
서 패러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해를 최대한 줄이
고 불편한 분들이 없도록 노력하죠. 의도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경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발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 관찰이 취미... 비우기도 중요해

관찰력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은데.

어릴 때 동화책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성우 분들이 목소리를 바꿔
가면서 연기하는 것을 즐겨 따라 하기도 했죠. 식당이나 카페, 마트
등 언제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것이 취미예요. 길 가



다가 들리는 대화, 버스에서 마주친 풍경 같은 것들이 다 캐릭터로 이어지더라고요.

뛰어난 연기력을 갖추기 위해 평소에 특별히 노력하는 것이 있나요?
사람들의 말투, 억양, 습관, 호흡, 행동 등을 유심히 살펴보고 제 식대로 기억해 두는 편입니다. 어떤 인물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게 하려고요. 그리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일과 관련된 감정이나 스케줄을 비우고 최대한 쉬는 데 집중하는 편입니다. 비우기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망가짐을 불사하는 연기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결혼 전이라면 부끄러웠을 것 같은데 늘 귀엽고 예쁘다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남편 덕에 용기를 내서 연기하는 것 같아요. (웃음)

저축하려고 노력... 소비 점검하는 습관도

맛벌이 부부신데 평소 수입 관리와 재테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수입 관리는 제가 맡고 있어요. 직업의 특성상 소득이 워낙 유동적이라 늘 저축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특히 쇼핑이나 외식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재테크의 첫걸음인 것 같더라고요. 생활 전반에서 소비를 한 번 더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금융 관

련해서 따로 공부하진 않는데, 기회가 된다면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살짜리 아들도 개그의 재능이 보이는데.

진짜 신기한 게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해서 어른들이 웃으면 그 행동을 반복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본인이 원하면 후배로 양성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약 안 웃기다면 바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해줄 것 같아요. (웃음)

정극 연기에도 꾸준히 도전하고 계시는데.

드라마 ‘신병’을 통해 배우로서 칭찬을 들으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앞으로 연기 공부를 더 해서 배우 김해숙 선배님처럼 엄마 연기로 감동을 주는 연기자가 되고 싶어요. 드라마 현장에서의 매력도 있고 앞으로 코미디와 연기를 병행할 생각입니다.

코미디 할 때 가장 행복... 독서로 하루 시작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이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설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쿠팡 플레이 ‘SNL 코리아’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준 것이 큰 도움이 됐어요. 다시 무대에 서니까 ‘맛다, 이게 내 자리였지’ 하는 확신이 들었고요. 그 후론 웬만한 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꾸준히 달려온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일할 때 가장 행복한 것이 코미디이고, 이 일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에너지를 얻고 즐거운 순간들이 많아요. 늘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처음에 엄마가 이 길을 만류하셨을 때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꼭 빼놓지 않는 하루의 루틴이 있나요?

아침에 식탁에서 녹차 한 잔을 마시면서 책 한 챍터를 꼭 읽어요.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하는 저만의 루틴이에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사우나에 가



서 땀 흘리고, 냉탕에 들어갈 때 제일 행복해요. 요즘은 한강에서 달리기도 자주 해요. 땀 흘리고 나면 머리도 마음도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 줄 때 보람 느껴

인생의 좌우명은?

‘웃길 때 가장 예쁘다’랑 ‘긍정적으로 살자’예요. 제가 코미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저 스스로 하던 말인데, 지금도 힘들 때마다 생각나요. 이런 말들이 저를 활기차게 움직이게 해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올해 안에는 제 안에 있는 다른 모습들도 좀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어떤 개그우먼이자 연기자로 기억되고 싶은지.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힘든 분들이 저 때문에 웃는다는 메시지를 받을 때 눈물이 납니다.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일을 한다고 느낄 때마다 큰 보람을 느껴요. 많은 분들에게 재미있고 사람 좋은 코미디언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



주황빛의 달콤함

단 감



단감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과일 중 전 세계
생산량 1위를 차지하는
유일한 과일이다.
아삭하면서도, 달콤하고
한편으로는 약간의
떫은맛이 어우러져 오묘한 게
매력이 있다.

글 전원생활



갈 레 트

준비하기(2인분)

갈레트 반죽(밀가루 80g, 물 130ml, 달걀 1개, 소금 1큰술, 버터 1큰술), 단감 2개, 흑설탕 2큰술, 크림치즈 2큰술, 타임 3줄기

만들기

- 1 볼에 밀가루→소금→물→달걀 순서로 넣고, 반죽을 떨어뜨렸을 때 주르륵 흐르는 정도가 될 때까지 젓는다.
- 2 팬에 버터를 올린 후 ①을 넣고 약불에서 앞뒤로 3분씩 구워 팬케이크를 완성한다.
- 3 단감은 껍질과 씨를 제거한 후 8등분으로 썬다.
- 4 팬에 ③·흑설탕을 넣은 후 15분간 졸인다.
- 5 ②에 크림치즈를 바른 후 ④를 올린다.
- 6 ⑤의 가장자리를 동그랗게 안으로 접은 후 타임을 올려 완성한다.

*갈레트(galette)는 팬케이크 위에 고기·어류·치즈·샐러드 등을 올려 먹는 빵으로 프랑스의 전통 음식이다.

감나무만큼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또 있을까. 봄에는 수수한 꽃을 피워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한다. 여름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을, 가을엔 아삭하고 달콤한 열매를 선사한다. 땅에 떨어진 단풍은 겨울을 지나 오며 거름으로 변한다. 먹으면 기분이 더 좋아지는 이유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피로 해소를 돕기 때문이다. 단감은 가을과 겨울에 많이 나는 사과·배·감귤 등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C·A가 풍부하다. 비타민 C는 간의 활동을 도와 해독을 촉진해 숙취에 좋으며, 비타민 A는 피로한 눈에 특히 유용한 성분으로 100g만 먹어도 일일 섭취 권장량의 3분의 1을 섭취할 수 있다. 또한 감의 떫은맛을 내는 '타닌(tannin)'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단감을 고를 땐 꼭지가 황색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껍질에 윤기가 있고 표면이 울퉁불퉁하지 않은 것이 맛있다. 감을 먹을 때는 세로로 잘라야 단맛을 균등하게 느낄 수 있다. 꼭지 반대쪽과 씨 주위가 가장 달고 맛이 있다. 윗부분의 움푹 들어간 홈을 따라 자르면 씨를 피해 감을 자를 수 있다. 단감을 보관하기에 좋은 온도는 0~2℃이므로 차가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실내 온도가 맞지 않는다면 비닐 팩에 넣어 냉창고에 보관하자. 떫은맛이 가시지 않은 단감은 종이로 하나씩 싸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2~3주 정도 보관하면 달고 맛있는 감이 된다.🍎

감 단감



준비하기(2인분)

단감 4개, 우유 300ml, 생크림 300ml, 판 젤라틴 1개, 설탕 2큰술, 민트 2개

만들기

1 단감은 껍질과 씨를 제거한 후 6등분으로 썬다. 2 ①의 단감 중 3개 분량은 핸드믹서에 간다. 3 판 젤라틴은 찬물에 7분간 불려주고, 생크림·우유·설탕은 냄비에 넣고 끓인다. 4 ③의 냄비에 불린 젤라틴을 넣고 섞은 뒤, 컵 2개에 ⅔ 정도씩 나누어 부은 후 냉장고에서 4시간 동안 굳힌다. 5 ④ 위에 ②를 채우고 ①의 단감 조각과 민트를 올려 완성한다.

*판나코타(panna cotta)는 생크림·설탕·젤라틴을 재료로 만든 푸딩으로 이탈리아의 전통 디저트이다.

감 땃소



준비하기(2인분)

단감 3개, 레드와인 1병, 계피 5개, 팔각 5개, 레몬즙 1큰술, 꿀 2큰술

만들기

1 단감은 껍질과 씨를 제거한 후 8등분으로 썬다. 2 냄비에 레드와인·①·계피·팔각·레몬즙·꿀을 넣고 센불에서 30분간 끓인다. 3 ②를 약불에서 10분간 끓여 완성한다.

*땃소(vin chaud)는 따뜻한 와인이라는 뜻으로, 와인에 과일과 계피 따위를 넣고 끓여 만드는 음료이다.

영화 속 이야기가 정말 현실이 되는 것은 영화가 현실의 깊은 모순과 갈등 지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지진 불안에 떠는 일본을 배경으로 감시가 일상화된 사회를 그린 소라 네오 감독 <해피엔드>는 임박한 재앙을 경고하면서도 피난처를 알려준다.

글 남은주 번역가 사진 주)영화사 진진(JINJIN Pictures)

지구가 흔들려도 우리는 사랑할 거야

감시 사회를 살아가는 아이들을 그린 영화 <해피엔드>

나는 소망한다, 아름다운 것을

깜깜한 밤하늘에 작은 빨간 불빛들이 반짝이는 첫 화면이 오래 지속되다가 ‘이것은 가까운 미래 이야기’라는 말로 영화가 시작된다. 별처럼 보였던 그 불빛들은 고층 건물 첨탑에서 나오는 빛이다. 일본의 어느 대도시 밤거리를 유타(쿠리하라 하야토), 코우(히다가 유키토), 아타(하야시 유타), 밍(시나 켄), 톰(아라지) 5명의 아이들이 뛰어간다. 학교 음악연구회 동아리 멤버들인 이들은 음악 클럽으로 달려가고 있다. 청소년 입장 불가라고 밀어내는데도 유타와 코우는 기어이 뒷문으로 숨어든다. 일렉트릭 음악을 뿜어내는 디제잉 박스 앞에 선 둘은 눈을 감고 귀로 코로 피부로 음악을 빨아들인다. 마치 지하에 갇혀 있던 죄수가 햇볕을 쏘일 때처럼 황홀하고 탐욕스럽게. 음악과 친구, 이것은 18살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다. 세상은 위태하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젊었을 때 이런 차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학교 경비가 교장 선생의 노란색 스포츠카를 살펴보며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다. 아마 교장도 그랬을 것이다. 교장이 경비의 손을 떨어내는 장면은 돈 있고 계급적 지위를 갖춘 사람만이 이런 것을 가질, 실은 바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거침없이 드러낸다. 교장은 젊을 때 바랐던 것을 손에 넣으며 젊음까지도 욕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교장의 스포츠카를 탐하기보다는 그것을 수직으로 운동장에 세워놓는 기발한 방식으로 세상의 다른 질서를 만들기를 원한다. 어른들은 시계를 돌려 다시 청춘의 시절로 가고 싶어 하지만, 정작 청춘일 때 무엇을 원했는지는 죄다 잊어버렸다. 어른들은 스포츠카를 타고







달리는 것이 멋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이들은 세로로 세워진 스포츠카가 “정말 급진적이고 예술적”으로 보인다며 기뻐한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지진 경보, 지진 경보!

분개한 교장은 범인을 잡지 못하자 학교에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 아이들 얼굴을 인식해 감시하고 조금만 그릇된 행동을 해도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학교 밖에서도 사회가 이미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참이다. 지진경보가 시도 때도 없이 울리고 정부는 재난을 핑계로 사회를 통제하며 마침내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 경찰은 시민들을 수시로 불심검문하고 얼굴 인식 기술로 신원을 파악해 체포한다.

〈해피엔드〉속 아이들은 이중으로 억눌려 있지만 실은 카메라 사각지대로 기어 다니고 날아다니며 자유의 공간을 넓힌다. 경찰이 클럽을 급습해서 유타와 코우가 단속위협에 처했을 때 바깥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불을 꺼버렸고 아이들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아이들 사이에도 균열이 찾아온다. 경찰은 다른 아이들을 훈방할 때도 늘 재일한국인인 코우에게만 영주권을 제시하

라고 한다. 교장은 4대째 일본에서 살아 온 코우를 “너는 보통 일본 아이들과 다르잖아” 하면서 노골적으로 의심한다. 자원입대자를 모집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온 자위대원은 일본 국적이 없는 아이들은 교실에서 내보낸다. 이 영화는 계급에 대한 영화다. 누군가를 배척함으로써 통치를 견고하게 하려는 정치적 기획에 대한 영화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서로 손을 잡고 버티지만 점차 그 손은 느슨해진다. 코우는 유타가 그렇게 천진할 수 있는 것은 차별과 거리가 먼 ‘보통 일본 아이’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유타는 시위에 가담하는 코우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 영화에서 특히 뛰어난 것은 음악과 음악을 쓰는 방식이다. 음악은 시종 다채롭고 아름다운데 아이들이 균열을 느끼는 순간 음악은 벗어나 버린다. 그리고 그 순간엔 대체로 지진경보가 울리거나 정말 지진이 일어나는 순간과 일치한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음악이 사라지고 카메라 또한 멈춰버리는 것이다. 음악이 없는 순간까지도 꼭 중간 돌연 찍힌 쉽표처럼 음악화하는 것이 〈해피엔드〉의 음악적 기획이다. 소라 네오 감독은 거장 음악가 류이치 사카모토 감독의 아들로, 그의 첫 작품은 사카모토가 죽기 전의 나날을 담은 다큐멘터리 〈류이치 사카모토:오퍼스〉였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있어야 해”

감독은 관동대지진 때 많은 한국인들이 희생당한 역사를 떠올리며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한다. 정말 다시 그러한 큰 지진이 온다면 우리는, 소년들은 어떻게 할까? 영화는 현실의 긴장 속에서 보이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관객들의 마음속에도 불안이 찾아온다. 하지만 영화에서 유타는 끊임 없이 친구들에게 속삭인다. “사랑해, 학교에서 다시 만나자.” 그 말은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여서 지구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계속될 것만 같다. 그래서 마침내 친구들도 유타에게 말하고 만다. “나도 너를 사랑해.”

2025년 WM특화점포
(총 68개소)

경기	경기영업부	031-230-3800
	안양시지부	031-380-0800
	성남시지부	031-751-0161
	평택시지부	031-653-7100
	의정부시지부	031-878-0100
	안양호계금융센터	031-451-2680
	용인시지부	031-332-2181
	안산시지부	031-401-0640
	NH금융PLUS 분당센터	031-703-8600
	오산시지부	031-372-1101
강원	김포시지부	031-982-1921
	과천시지부	02-507-2131
	강원영업부	033-254-5071
	강릉시지부	033-641-3801
충북	원주시지부	033-730-8000
	충북영업부	043-252-6579
	가경동지점	043-233-4211
충남	충북대학교지점	043-265-5101
	천안시지부	041-561-3611
	서산시지부	041-669-3530
전북	아산시지부	041-544-2134
	삼천동지점	063-221-4744
	전북영업부	063-237-5090
	군산시지부	063-452-9600
전남	순천시지부	061-723-6300
	전남영업부	061-289-7801
	여수금융센터	061-682-5151
경북	순천금융센터	061-752-3134
	상주시지부	054-537-2200
	포항시지부	054-247-2941
	안동시지부	054-854-3311
경남	영주시지부	054-635-3021
	창원시지부	055-263-6270
	경남영업부	055-284-9526
	진주시지부	055-830-3333
	김해시지부	055-334-5111

제주	제주시지부	064-746-1117
	노형금융센터	064-746-6111
	제주금융센터	064-751-5747
서울 (강남)	대치동지점	02-567-0654
	서울영업부	02-483-2711
	강남중앙금융센터	02-538-8151
서울 (중앙)	연신내지점	02-359-4601
	마포금융센터	02-715-4491
	종로금융센터	02-733-7001
서울 (강북)	성동금융센터	02-2293-4171
	목동역금융센터	02-2699-1701
	서초동지점	02-584-0117
서울 (강서)	공향동지점	02-2664-2711
	부산영업부	051-802-5206
	온천동지점	051-553-5363
부산	부산대학교지점	051-512-0715
	마린시티금융센터	051-744-5601
	수성동지점	053-754-9531
대구	대구중앙금융센터	053-256-2516
	대구중동금융센터	053-761-3380
	부평금융센터	032-510-8600
인천	송도시티지점	032-851-9130
	연수금융센터	032-818-3674
	상무금융센터	062-384-2181
광주	봉선동지점	062-653-2185
	풍암동지점	062-682-8152
	대사동지점	042-229-6560
대전	오정동지점	042-625-4282
	울산영업부	052-258-4402
	NH금융PLUS 세종영업부	044-863-6101
세종	본점영업부	02-2014-1428
	서울대학교지점	02-889-8174
직할		

NH **새100**

종합자산관리센터

금융 · 세무 · 부동산 ·
은퇴설계 등 고객님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드리는
자산관리
(Wealth Management)
특화영업점입니다.

New
Happiness

은퇴설계
행복하게

은퇴설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은퇴목표를 설정, 자산현황을 진단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 받으세요!

새100 플랜

NH농협은행



QR코드를 스캔하면 새100 플랜 2025 가을호를
e-book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